

비큐나(Vicuna)(1)

캐시미어나 알파카, 비큐나, 모헤어, 낙타, 라마, 구아나코, 앙골라 토끼털 등 비교적 인간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 이런 동물들의 면모를 고급 수모(獸毛=hair)라고 하며, 많은 관심 속에 우리의 의생활을 즐겁게 하여 주는 단골이라고 이미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캐시미어, 모헤어와 알파카를 설명하고 나니 이번에 소개할 것이 비큐나이다.

비큐나도 낙타류 라마(Lama) 속에 속하는 동물로 이 동물 역시 남미의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를 거쳐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해발 5,000 m 이상이 되는, 알파카 서식지보다도 더 높은 안데스 산맥에 수 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서식하고 있는 초식성 동물로서 대단히 희소가치가 있고 부드러우며, 고급 면모를 제공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어느 동물이 무슨 과에 들어가느냐 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설도 없다. 학명은 Lama Vicugna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로서 이름은 비큐나이지만 제품의 이름만을 비큐나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으며, 이 비큐나는 알파카, 라마, 구아나코와 가까운 친척별이라 전통적으로는 비큐나와 알파카를 비큐니아 속에 포함시키고, 라마와 구아나코를 라마 속(Tribus Lamini)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이 네 가지 동물은 말하자면 전부 친척별이라 아직도 통일된 학설은 없지만, 비큐나만을 비큐니아 속으로 하고, 나머지 3종류를 라마 속으로 하위 분류하는 학설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큐나를 낙타과의 하위 분류로 본다.

비큐나란 이름의 유래도 역시 스페인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원주민인 케추어 족이 부르던 Wikuna가 변하여 Vicuna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비큐나의 원뜻은 모른다.

비큐나의 몸집은 약 130 ~ 160 cm정도며, 키는 약 85 cm 정도로서 알파카보다는 다소 작으나 단열성이 뛰어난 털로 덮여 있다. 얼른 보면 구아나코와 비슷하지만, 비큐나는 턱에

약 30 cm정도의 수염이 있어 구아나코와 구분이 된다.

비큐나는 약 200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그 털을 '신의 섬유'라고 하여 희랍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의 양모"와 비견되는 대단히 희소가치가 있는 섬유로 취급하였다.

AC 1200년 전후로 발전하였던 잉카문명 시대에는 비큐나 섬유로 만든 의류는 국왕에게 먼저 바쳐지고, 부족장이나 귀족 이외의 사람들은 비큐나의 가죽이나 그 털을 가질 수 없었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포획이 인정되었다. 비큐나를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았으며, 이 털을 수확할 때는 전 부족이 동원되어 행하여졌던 국가적인 의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비큐나는 남획되었고, 생존한 숫자가 급감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큐나의 밀렵이 급증하였고, 1965년에는 불과 5,000 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페루 정부에서는 1968년 8월 비큐나의 보호령을 내리고, 비큐나 면모의 거래를 중지시켰다. 비큐나 한 마리를 도살하면, 한 마리당 징역 1년, 재범은 징역 3년이란 중형에다 비큐나 면모의 거래도 범죄로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대에는 10만 마리까지 늘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페루 정부의 견해다.

비큐나의 멸종 위기에 신경을 곤두세운 페루 정부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 워싱턴 조약(CITES)을 체결하여 비큐나 면모의 국·내외 거래를 제한하고, 비큐나의 자연보호 구역을 설치, 대규모 방목장을 건설하여 새로운 번식방법의 연구, 번식 장려금 제도의 채택하는 등 비큐나 원모의 거래를 극도로 제한하였다. 원래 비큐나는 겁이 많아 사람 손에 의한 사육은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이 문제도 해결하여 현재는 약 35만 마리까지 증식하는데 성공하였다. ♣ (공석봉)



<초원의 비큐나>